

월요광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우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15년 올미년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행운을 갖게 되었다. 거의 매주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오르내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전국의 도시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내 도시계획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최고의 상위기구이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그 구성은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으로 총 30인으로 되어 있다. 민간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90% 이상이 대학교수들이다. 시민단체나 언론계 등 비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심의 시 전공 영역에서 깊어 있게 토의된다.

위원회는 1분과와 2분과로 나누어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는 위원 중에 도시계획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 안건의 보고는 지자체의 과장급 이상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책

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질의응답도 우리 지역의 경우 통상 그 용역을 수행했던 전문용역회사의 직원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 중도위에서는 대부분 보고자(지자체 공무원)와 직접 주고받는다. 만약 보고자의 내용 파악이 부족해서 설명이 미흡할 경우는 유보·재상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의 현장실사를 하게 한다. 이때 실사위원을 5명 정도 선발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이 재상정될 때 실사위원들 각각의 의견을 듣는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는데 잘 보완한다면 바로 적용할 만한 제도인 것 같다.

더욱 더 인상적인 것은 위원장의 역할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부드럽지만 지루하지 않은 분위기 만들기, 전문적 식견 등으로 그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건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참석석 회의에서 찬반투표까지 간 경우

는 없었고, 위원들의 전원합의에 의해서 수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장의 운영 테크닉이 중요한 것 같았다.

최근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교통대란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언론사 48층 신사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간의 정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들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충분한 토의가 부족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편만 아니라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랜드마크 기능으로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랬더라면 보다 좋은 대안이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에서 추상적인 의견이나 과도한 기구채널 요구, 고압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외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소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조칼럼

공익변호사를 아시나요



이 소 아
변호사·동행 대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행'이 지역 공익변호사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14일 20여명의 회원이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동행은 '소통, 연대, 지식, 행동'을 지향하며, 지역 인권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 광주·전남지역 인권 환경에 대한 감시 및 제도 개선, 지역 변호와 지역 NGO 사고 역할, 인권법률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여성인권, 장애인권, 빈곤과 복지, 이주, 취약 노동 분야입니다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분야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공익변호사라고 하면 대부분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범용구조장 다른 건 뭐지? 운영은? 누구랑 일하나?" 등등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공익전업변호사(일종의 비영리단체의 상근 변호사입니다)로서 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로서의 일과 활동가로서의 일이 그것이지요.

변호사로서는 여성폭력, 장애, 빈곤복

지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관련 NGO단체에 법률 자문, 송무, 기타 법률 현안 대응, 인권교육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인 변호사의 활동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마도 변호사가 직접 단체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후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송무보다는 사전적인 법률인권교육과 법률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도 약간의 차이네요.

사전적인 법률인권교육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현재 광주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킹과 연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감사 양성 교육을 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법률 서비스 연대 활동으로는 현재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법률 조력인으로서 재정 신청,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행정 소송,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활동가로서 하는 일은 단체 활동을 기

획·조직·관리하는 오거나이저(organizer·조직자),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이끌어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조영역과 NGO 영역을 잘 엮어내는 접착제이자, 자격증을 가진 팔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것인데요. 대부분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자원봉사처럼 하는 거죠?"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활동가는 '동행'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동행은 기본적으로 '후원회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회비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재정 문제로 1명의 상근변호사와 1명의 활동가만 일하고 있지만 언제나 재정이 확보되어 함께 일할 활동가와 변호사를 모집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행'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社說

광주 '5대 군사시설' 이전 본격 추진해야

최근 광주시-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간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기본계획과 설계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도 편성됐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 전국 명소로 발돋움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초기 예산까지 확보돼 사업의 탄력이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광주 지역 '5대 군 시설'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대 군 시설은 무등산 방공포대를 비롯해 광주 군 공항, 평동 포 사격장, 31사단, 공군 탄약고 부지 등이다. 이제 이들 시설의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군 공항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이전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 등 이전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원과 민원 해

결책 마련이 관건이다. 해당 시설 전체 면적이 무려 1300만㎡나 돼 대체부지 확보에 들어갈 수조 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설이 옮겨오는 것을 꺼리는 일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

군 시설 이전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군사 업무는 특수성 때문에 행차가 할 분야가 많고, 민원 민원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광주시는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구성을 고려해 볼직하다.

전담 부서를 만들면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면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무 부처와의 예산협이나 관련법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할 전남도 및 이전 대상시에 쏠리는 인접 시·군과 조정과 협의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업무추진비를 마구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업무처리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재)광주영어방송, (재)광주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주의와 경고를 받은 직원만 21명, 기관경고는 7건이나 됐다.

감사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 뒤 입찰을 포기한 업체의 계약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지급 근거가 없는데도 내부 방침만으로 모두 57건에 포상금 2300여만 원을 나눠 주었다. 이밖에 불합리한 인사 등의 인사 난맥상도 있었다.

영어방송의 경우 2012년부터 3년간 심야시간이나 주말과 휴일 등에 사용 성격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건수가 무려 66건에 600만 원에 달했으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 최소소요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 6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 규정도 어겼다.

16건이 적발된 광주문화재단은 공연장 사용료나 공연예산 임대료를 부당하게 감면해 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전통문화관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감면한 사용료는 각 11건과 3건에 2800여만 원과 2억5000만 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수당이나 연봉·호봉 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 회수해야 할 금액이 무려 4억4000만 원이나 됐다는 점이다. 관리업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거나 성과연봉을 기준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역사가 그리 크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는 투명하게 공개돼 어느 때고 국민의 감시망 아래 놓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한 푼의 돈이라도 하투루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無等鼓

해마다 겨울만 되면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다. 빨간색·파란색으로 포장을 친 포장마차다. 퇴근길에 가끔 동료와 포장마차에 들러, 빠알간 양념으로 버무린 떡볶이를 사먹는 적이 있다. 떡볶이는 이미 국민 간식이 된 지 오래다. 40·50대 직장인들에게 주머니가 가벼웠던 젊은 시절의 추억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떡볶이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저 그런 음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떡볶이는 그리 알잡아 볼 음식이 아니다.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임금에 먹는 왕실 요리였기 때문이다.

떡볶이는 1460년대 어의(御醫) 전순의가 쓴 '식료찬요(食療纂要)에는 '병자(餅炙, 구운 떡)'라고 기록돼 있다. 이 오리는 떡과 고기에 고추 등을 양념해 만든 것으로 환자를 위한 음식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병자를 즐겨 먹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기도 하다.

이후 조선시대 말 요리책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병자'라는 한자어 대신 '떡볶이'이라는 한글 표현이 등장한다. 당시 떡볶이는 떡볶이나 떡잡채

형태였으며, 달달한 맛을 내는 떡볶이는 왕자와 궁주의 간식용이었다.

임금이 즐겨 먹던 떡볶이가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궁녀와 환관들을 강제로 내쫓을 것이 계기가 됐다. 수라간을 나온 궁녀들이 생계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값이 비싼 탓에 일반인들은 쉽게 즐길 수 없었다.

현재의 떡볶이는 서울 신당동에서 보따리장수를 하던 마복림 할머니가 원조라고 한다. 마복림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간장 떡볶이를 고추장에 춘장을 넣은 고추장 떡볶이로 바꾸었다. 이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떡볶이는 재료가 다양해지고 소스 종류도 수십 가지에 이르게 됐다.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들의 어려운 발음을 해결할 목적으로 'TOPOKKI'라는 이름도 만들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신화로 불리는 '아팍'의 전 대표가 가맹점 개설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사법 처리됐다. 그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의 롤 모델이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병자(餅炙)

기 고

쉐필드처럼만 하라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년대 불어 닦진 경기집체의 영향으로 쉐필드는 '실업자의 도시'로 몰락하게 된다. 영국 평균 실업률을 훨씬 웃돌아 실업률이 15.8%까지 치솟았다.

몰락해가던 쉐필드의 부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포츠 이벤트 유치'다.

영국 중부에 위치한 인구 53만명의 쉐필드는 1991년 세계학생경기대회(World Student Game)로 불리는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도시 재생의 기회로 삼았다.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유니버시아드 기간 공들여 쌓은 자는 스포츠시설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다. 쉐필드는 1995년 글래스고, 버밍햄과 함께 'National City of Sport'로 인정받았고, '철의 도시'에서 '스포츠의 도시'로 이미지를 확 바꿨다. 이를 계기로 영국정부스포츠연구소(English Institute of Sport) 분원을 유치해 영국내 스포츠 과학·의료·기술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쉐필드의 전략적 특징은 '지속성'에 있었다. 대회 개최 이후 스포츠 인프라를 이용한 스포츠 이벤트 전략으로 17년간 600회 이상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는 연간 36회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9000만 파운드(약 1700억

에 이른다)고 한다.

쉐필드는 비록 작은 이벤트이더라도 많은 수를 개최해 총괄 단체와 관계를 강화하고, 이벤트 개최의 노하우를 축적해 그 후에 보다 더 큰 이벤트의 유치와 개최로 이어갔다. 2017년 스페셜 올림픽 개최를 앞둔 쉐필드는 광주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길 좋은 토대를 다졌다. U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10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탑을 고작 2주 남짓의 대회 기간 동안 관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6000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성공시킨 U대회를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대회 유치 당시 광주의 가장 큰 고민은 '도시 접근성'이었다. 외국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광주로 오기 위해 서너 시간 버스를 타고, 또는 비행기로 오는 번거로움은 대회 유치의 걸림돌이었다.

U대회를 계기로 조기 완공된 호남고속철은 광주의 도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여기에 국제 규격에 맞춘 최첨단·친환경·고효율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로 지역

의 스포츠 복지인프라가 대거 확충됐다.

U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쌓은 많은 인재들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광주시민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광주의 자산이다. 대회가 끝난 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경제효과과는 이러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생산유발 1조4842억원, 부가가치유발 5334억원, 고용유발 1만6700명의 효과가 창출됐다.

광주라는 도시가 지난 국제적인 스포츠 영향력은 77위(2012년)에서 올해 22위까지 경종 뛰어올랐다. 광주시민의 자부심과 자신감, 글로벌 시민의식 등으로 광주의 역량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과 광주만이 지닌 개성을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 지난날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 자원이다. 여기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정체성과 광주U대회만의 UN스포츠평화 아젠다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광주U대회의 성공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일궈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대회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 U대회의 성공 에너지를 어떻게 도시발전으로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이때, 광주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쉐필드처럼만 하라"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